

# 도, 내년도 벼 품종 다변화 지원책 마련

### 신규 품종 육성 위해 쌀 생산·유통지원 3개 사업 개선... 쌀 경쟁력 제고·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우수브랜드 육성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벼 품종 다변화를 위해 내년 신규 품종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전북지역에는 이상기후에 의한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으며, 신동진의 출수기와 맞물려 전체 4만8천ha의 피해 규모 중 신동진의 피해가 무려 84%를 차지했다. 당시 신동진은 전북 벼 재배면적의 64%에 달했으며, 신동진의 출립 현상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벼 품종 다변화

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쌀 생산·유통을 지원하는 3개 사업을 개선하여 신규 품종을 육성하는 경영체에 종자공급부터 쌀브랜드 홍보까지 우선 지원한다.

먼저,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품종 종자공급을 위해 신동진을 제외한 정부보급종 구입시 1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가가종자 채종포 단지도 우선 선발한다.

또, 신규 품종을 육성하는 경영체에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의 지

원을 제한 없이 1회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품종 재배단지에는 별도 사업평가 없이 교육컨설팅 등 기술보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마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협, 법인에 신규품종 매입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개보수·증설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브랜드쌀 육성사업'을 통해 도내 우수브랜드쌀 선발 평가시 '신규품종 육성 경영체'에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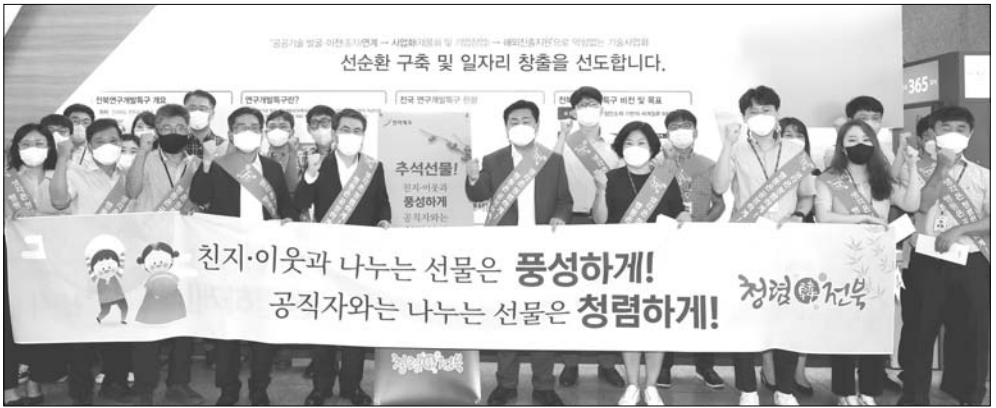
20점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된 5개 경영체는 인센티브로 홍보·관측비용을 최대 180백만원에서 최소 6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별 신청기간은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9월 14일까지, '쌀경쟁력제고사업'은 9월 23일까지다. 해당 소재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우수브랜드쌀 육성사업'은 '23년 3~4월 신청·접수한다.

/김경수 기자

# 전북도, 추석 앞두고 '청렴 분위기 확산 캠페인' 실시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캠페인은 김관영 도지사, 조봉업 행정부지사와 감사관 등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기강 해이 및 명절선물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홍보했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추석을 맞아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5일 도청 1층에서 이뤄진 이번 캠페인은 김관영 도지사, 조봉업 행정부지사와 감사관 등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기강 해이 및 명절선물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해 5월에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홍보했다.

출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전북 마크가 새겨진 미니악과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이 담긴 리플렛 등을 배부하고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 등을 홍보하는 등 전북도 공무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캠페인을 함께한 김관영 도지사는 "올 추석명절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 주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공직자들의 청렴한 마음이 한 가위 보름달처럼 전북을 환히 비출 수 있도록 '청렴전북' 실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렴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는 추석 명절

을 전후해 복무 위반 등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해이, 소극적 업무처리 및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추진해 비위 적발시 엄중 문책해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을 예성이다.

한편, 전북도는 5월 반부패·청

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기관 청렴서한문 발송 △도민감사관 청렴소통추진단 운영 △청렴도 및 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 전북도,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수립·추진

### 시·군별 상황반을 통해 민원접수·신속처리·분리배출 안내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대응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로, 명절음식 및 배달음식이 증가하고, 차박·캠핑 등 소규모 가족 단위 활동이 늘

어나 평소보다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연휴 기간 중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해 고장을 찾은 귀성객에게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생활쓰레기 관련 도민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휴 기간 동안 시·군별 상황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불편 상황 발생시 시·군별 '상황반'으로 연락하면, 기동 청소반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문의, 불법투기·불법소각 신고 접수 등 쓰레기 전반 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는 전주 281-2910, 군산 454-3454, 익산 859-5414, 정읍 539-5723, 남원 620-6243, 김제 540-3543, 완주 290-2673, 진안 430-2336, 무주 320-2336, 장수 350-2537, 임실 640-2393, 순창 650-1725, 고창 580-2917, 부안 580-4357 이다.

또한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 설치하고 발생량 저감을 위해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홍보한다.

/김경수 기자

# 전북 관광산업 '글로벌 홍보'

### 말레이시아 32개 여행사 대상, 전북 관광설명회 개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전북의 관광산업의 글로벌 홍보를 위한 전북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랜드말레이니엄 쿠알라룸푸르' 호텔에서 말레이시아 32개 여행사 관계자 대상, 전북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 전북도 여행상품(365 Days Experience Tour of Hallyu Theme) 11회 운영 중 중국과 대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전북도를 방문했던 국가다.

통해 올 하반기 '전북 계절여행 상품'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전북도는 9월 2일부터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무역센터(WTC)에서 열린 국제관광전(MATTA FAIR 2022)에 참가해 14개 시군의 관광자원 홍보와 체험이벤트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현지 방문객의 큰 관심을 얻었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이전 다시 동남아 관광시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말레이시아 여행업계 대상으로 '전라북도 안심관광(Kolhuk-do Carefree Tour)'을 주제로 한 전북관광자원 설명 1:1 상담회, 질의응답 등을 실시했다.

전북관광설명회는 전라북도 전담 여행사(주, 프리미엄패스인태너셔널)와 (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공동으로 주관했다. 양 단체는 말레이시아 현지여행사와 지속적 인 여행상품 상담과 홍보 활동을

한국관광공사 협업을 통한 한국관광 홍보관 내에 전북관광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방문객 대상 다양한 여행상품 상담도 진행했다. 특히 전라북도의 '전북 관광'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사회관계망(SNS) 및 글 행사(이벤트)는 인기가 높았다. 정읍 완주 순창 단풍 관광지, 부안 고창, 군산의 섬과 갯벌체험, 무주 장수의 겨울 상품, 진안 장수, 임실의 청정만이 자연문화와 체험활동 익산 전주, 김제의 역사와 축제문화, 남원의 아간관광자원 등 각각의 시군의 특색을 통해 전북도 내 체류여행을 확대하고자 했다.

/김경수 기자

# 전북소방본부, 태풍 대비 태세 강화

### 대원 안전·인명구조 최우선

전북소방본부는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복상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13개 소방서장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도 소방본부는 각 소관팀별 주요 조치사항을 비롯해 소방차량 침수지역 화재진압대책, 수방 장비 운용 현황, 119신고 폭주 대응 대책, 비긴급 신고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전했다.

상 지역 등 사전 점검과 수방 장비 점검 등 조치사항과 태풍 영향권 진입 시 대처 계획 등을 보고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본부장은 "태풍 진로 및 도달 시기를 미리 확인해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태원 안전과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스

# 태권도원, 태풍 대비 비상체제 돌입

### 인명·시설피해 최소화키로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5일 전북이 태풍 힌남노의 직접 영향권이 예상됨에 따라 자회사, 관계부서와 대책회의를 갖고 총력대응을 지시했다.

5일 현재 제주에 상륙 내륙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오용환 이사장은 태권도원 시설관리 대비를 종합적으로 점

검하고 강풍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피해 등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특히 종합상황실장에 이종갑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태권도원 운영관리 주식회사 서필환 대표와 재단 이순휴 부장 등 직원들이 나서 무주군과 경찰서, 소방서와 공조해 시설점검 등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